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과 목소리입니다.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3가합30051
피탄원인	최 애 숙

탄원서 제출 현황

구분	수량	탄원서 번호	비고
연명부	3,134부	1권	- 강릉시장 - 도의원전원 (49명) -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3,084명)
신분증 첨부	1,840부	2권 ~13권 26권	- 40부 : 2권 (1ea) - 150부 : 3권~13권, 26권 (12ea)
신분증 미첨부	2,322부	14권 ~ 25권 27권 ~ 28권	- 150부 : 14권 ~ 20권 (7ea) - 100부 : 21권 ~ 23권 (3ea) - 200부 : 24권, 25권 (2ea) - 300부 : 27권 - 272부 : 28권
TOTAL	7,296부	28권	

한 탄원인의 탄원서

■ 탄 원 취 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온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탄원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모든 다툼에는 이유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면 한쪽 편을 드는 건 그르다는 생각과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는 믿음에서 그리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 늦은 밤 적지 않은 담배를 피워가며 탄원서를 씁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온 사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입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전자제품도 어떠한 기계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속품을 인지하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소비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왜 제조사에서 만든 EDR이 사고 판단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국가는 방관자요, 국민은 그저 속으로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껏 수차례 급발진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도현군 사고처럼 국민 전체가 분노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EDR기록만을 가지고 사고의 책임은 “오직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제조사에게 지쳤고,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력은 기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현실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치다 못해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훗날 법이 개정되면 국민 모두가 개정된 법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하지만 도현이는? 도현이네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은...

그동안 잘못된 법을 보고만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겨우 12살된 도현이를 마치 순교자로 몰아 세운건 아닐런지요.

이런 사고를 그저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이라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도현군 가족에게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홀로 감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러시안 룰렛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발진 사고의 순번에서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현군 사고 방송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급발진 사고들 보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방송에서 다뤄졌으며, 지금도 유튜브에는 무수히 많은 도현군 사고 영상 조회수가 저마다 수백만회가 넘습니다.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규명한 그 앞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화 한 사람의 현명한 법조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